

연말의 풍경

이제 며칠만 있으면 12 월이 됩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일들과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바쁜 나머지, 정신 차려보니 연말이었다...라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달은 TV 뉴스 등에 소개되는 12 월의 대표적인 풍경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대청소 . . . 12 월 중순부터 하순

대청소는 원래 '煤払い(스스하라이 : 그을음과 먼지를 털어내는 대청소)'라는 설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 월 13 일이 되면 TV 에서도 절이나 신사에서 스스하라이의 뉴스가 나옵니다. 단,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는 장작으로 불을 피우는 것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스스하라이 대신에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대청소를 끝내는 것은 힘든 일이니, 12 월 중순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동지

일 년 중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긴 날입니다. 2022 년의 동지는 12 월 22 일(목)로, 일출 시각은 7 시 11 분, 일몰 시각은 17 시 15 분입니다. '일본의 양지'라고 불리는 미야자키에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은 10 시간 4 분입니다. 참고로 홋카이도는 9 시간으로, 한 시간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짓날에는 호박을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호박의 제철은 여름이지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므로 겨울에 영양을 섭취하기 최적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지에 유자탕에 들어가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자에는 비타민 C 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유자를 탕에 넣으면 상큼한 향이 나서 이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야의 종

12 월 31 일 설달그믐날의 밤이 되면, 각 절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종소리를 들음으로써 일 년 동안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행사라고 합니다. 제야의 종을 일반인이 칠 수 있게 해주는 절도 있으므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근처 절에 문의해주세요.



이 외에도, 12 월에는 다양한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벤트나 행사를 즐기는 여유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

※일본어 번역은 후일,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